

중소제조업 CEO 기업경영 심리적 공황 상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22일에서 26일까지 '중소제조업 생존전략에 관한 CEO 의견조사' 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Web 및 Fax를 통해 실시했으며, 총 433개 기업의 CEO들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응답업체의 기업 경영 20년 미만(응답자의 82.6%), 소기업(응답자의 60.7%), 가공조립 산업(응답자의 58.4%), 전통제조업(응답자의 85.2%), 내수위주(75.1%)의 제조업 CEO 들이 주로 설문에 응답했다. <편집자 주>

● 경기불황심리지수 '심리적 허탈'

중소제조업 CEO들이 느끼는 경제불안 심리는 심리적 불안 상태(40~89)를 넘어 '심리적 허탈' 상태를 느낄 정도로 불안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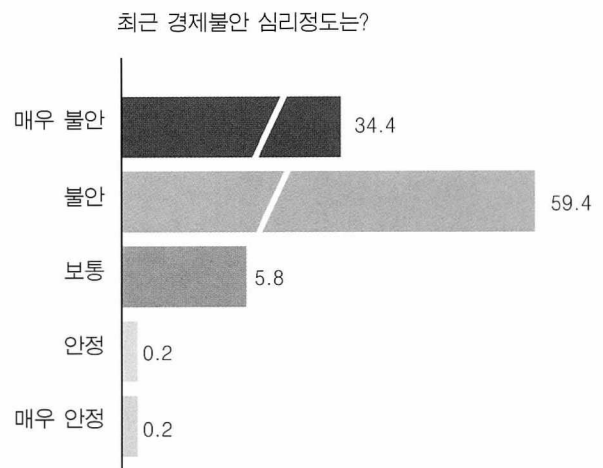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생활 소비재 관련 기업 CEO들이 불안심리는 지수가 29.2까지 떨어져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조사집단에서 심리적 허탈 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나마 나은 벤처 기업마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별 경기불황 지수 조사에서는 벤처제조업(46.1)보다는 전통제조업(34.6), 내수 위주 기업(37.2)보다는 수출위주 기업(33.3), 중기업(38.5)보다 소기업(34.8) CEO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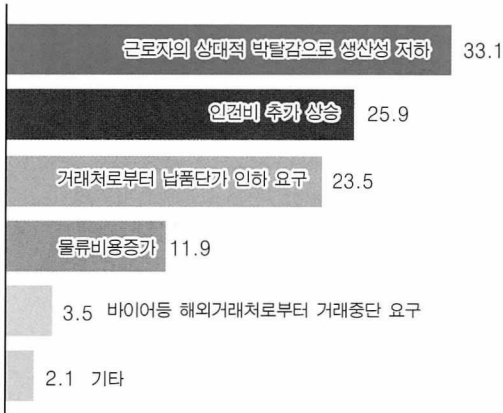
경기불황심리지수는 경제불안에 대한 CEO들의 심리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100을 보통으로 200에 가까우면 안정을 0에 가까우면 불안정을 나타낸다. 경제불안심리지수(CMSI CEO Mental-State Index) 조사결과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6.2%에 지나지 않은데 반해, 불안(59.4%)과 매우 불안(34.4%)으로 응답한 CEO는 93.8%에 달했다.

● 현 경제상황 지속 시 64.7%가 3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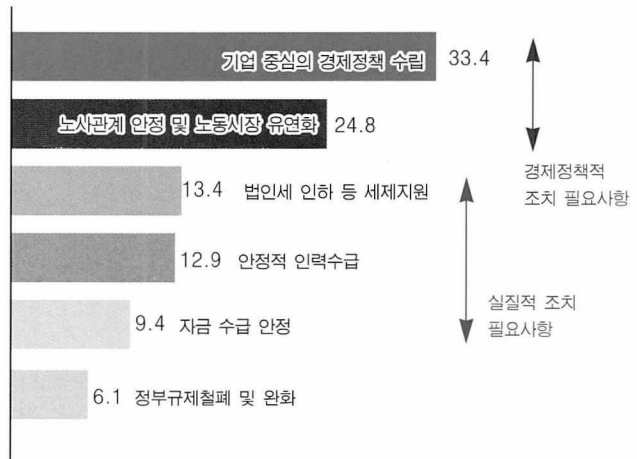
현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 년한을 묻는 질문에



최근 노사관계 불안정이 귀사에 미친 영향은?



귀사의 생존을 위해 정부등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은?



응답자의 64.7%가 3년 이내로 답했다.

이들 응답자 중 10.9%가 겪는 심각성은 훨씬 심해서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년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달했다. 아울러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CEO는 18.9%에 달했으며, 기업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6.4%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16.4%의 수치는 경기불황심리지수에서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6.2%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기불황심리지수가 다소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경기불황심리지수와 마찬가지로 향후 기업 생존 연한을 묻는 질문에 생활소비재 제조 관련 CEO들의 53.3%가 2년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응답했으며, 1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자들도 18.2%에 달했으며, 2년 이내 35.1%, 3년 이내 20.8%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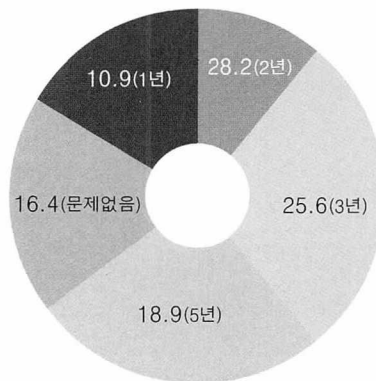
기업 경영 기간이 짧거나, 소규모 기업, 전통 제조업, 수출 위주 기업의 CEO들이 생존연한을 묻는 질문에 장기 전망을 내어놓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기업경영 연한이 짧을수록 판매선의 다변화의 어려움, 소기업이 겪는 은행 거래에서의 어려움, 인력난에 허덕이는 전통제조업의 어려움, 고 환율에 시달리는 수출 위주 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할 수 있겠다.

●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노사분규 보다 싫어

기업하기 싫은 기분이 들 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7%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꼽았다.

현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귀사가 생존할 수 있는 연한은?



이는 노사분규 발생 시(21.5%)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임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비관적인 경제전망 뉴스를 접했을 때라는 응답자도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보다 높은 28.2%로 응답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몰리는 것을 보았을 때라는 응답자도 8.1%에 달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탓하는 응답자들은 10 ~ 20년 경력의 CEO, 소기업, 생활소비재 관련 기업, 벤처기업, 수출위주 기업의 CEO가 많았으며, 모든 응답집단에서 노사분규보다 정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성토했다.

한편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아닌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수립(33.4%)을 우선 순위로 지목했으며,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24.8%)를 차 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법인세 인하(13.4%), 안정적 인력수급(12.9%), 자금수급 안정(9.4),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6.1%)를 요구했다.

현 경제상황 지속되면 3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

● 대기업 노사분규로 상대적 박탈감 느껴

최근 노사관계 불안정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아울러 인건비 추가 상승(25.9%), 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구(23.5%), 물류비용 증가(11.9%) 순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 연유로 보이며, 화물연대의 파업이 대비책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결국 중소기업 CEO들은 최근 분규로 인해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저하라는 내부의 압박과 납품 단가 인하, 물류비용 증가라는 외부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다.

사안별로 보면 벤처기업은 거래처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 생활소비재 생산 기업은 물류 비용 상승 압력, 내수 위주 기업은 인건비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생산성 저하 압력, 10 ~ 20년 경력의 CEO들은 거래 중단의 압력을 가장 심각한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 상황 극복 위해 기술혁신 및 공장 해외이전 추진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8%가 기술혁신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공장 해외이전(24.8%), 기업규모 축소(15.0%), 업종 전환(11.9%), 기업 간 전략적 제휴(6.7%), 전문인력 확보(6.4%), 기업인수 합병(2.9%)등을 추진 전략으로 꼽았는데 특별한 전략이 없는 기업도 2.6%나 차지했다.

기술혁신을 우선 순위로 꼽은 응답자 단위는 예상대로 벤처 기업(47.8%)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경력의 CEO(31.7%)가 적극적인 기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을 구상하는 단위는 중소기업(31.5%), 수출 위주 기업(29.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침체의 늪에 빠진 전통 제조업 CEO의 3.0%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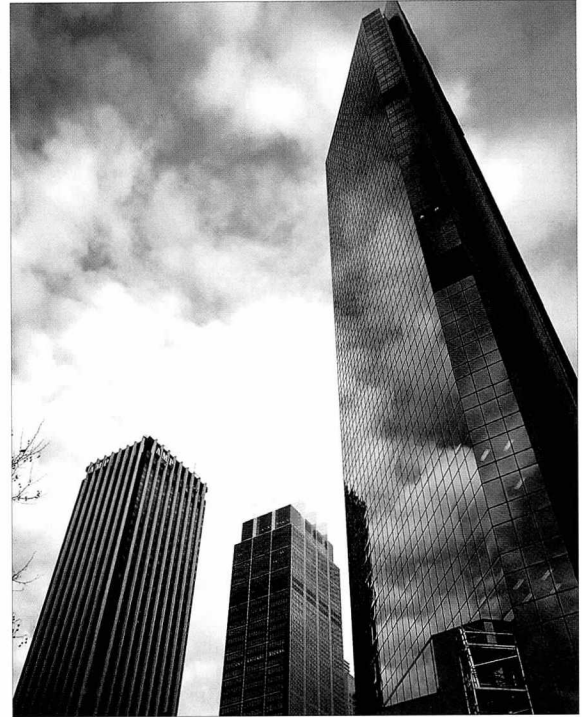
● 북한 개성공단 입주에는 회의적

개성공단 입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23.6%가 입주 의향이 있음을 내 비쳤으며, 입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7.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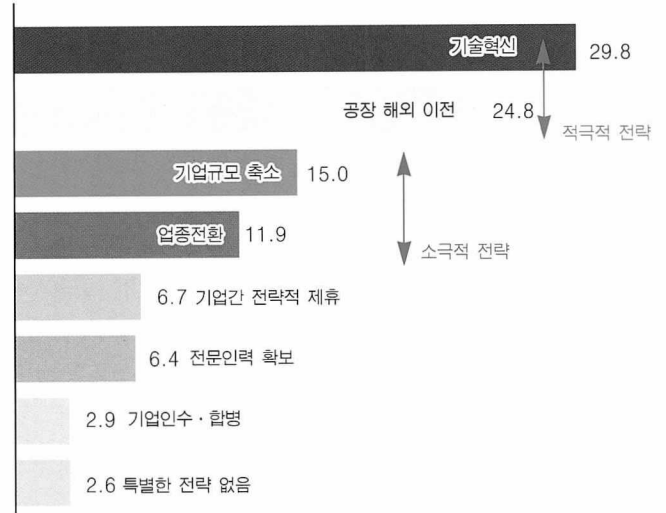
유동적이라는 응답자는 29.2%로 됐는데 이는 최근의 북 핵 문제 등 심각한 북미, 남북 관계가 영향을 끼친 탓으로 보인다.

개성 공단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단위는 생활소비재 관련 기업(35.1%)이었으며, 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25.0%), 수출위주 기업보다는 내수 위주 기업(20.4%)이 적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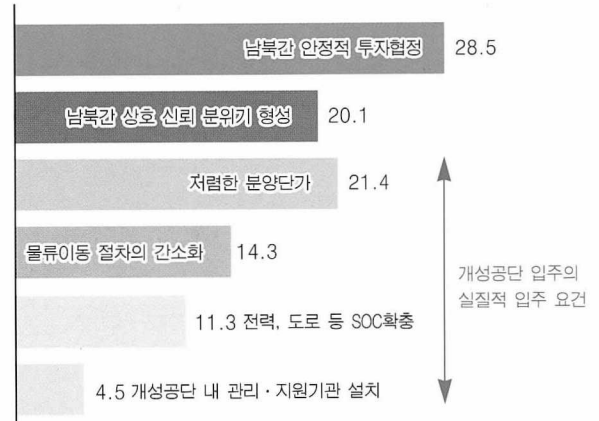
한편 응답자들은 개성 공단 입주에 필요한 선결요건으로 남북 간 안정적 투자협정(28.5%)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저렴한 분양



귀사의 생존을 위해 정부등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은?



북한 개성공단 입주의 선결요건



단가(21.4%), 남북 간 상호 신뢰 분위기 형성(20.1%), 물류이동 절차의 간소화(14.3%), 전력,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11.3%), 개성 공단내 관리 및 지원 기관 설치를 후 순위로 꼽았다.

개성공단의 적정 분양 단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5%가 10만원이하 라고 응답했으며, 16~20만원(20.1%), 11~15만원(8.0%)로 응답해 평균 11만 9천원의 희망 단가가 산출됐다.

●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으로 중소기업 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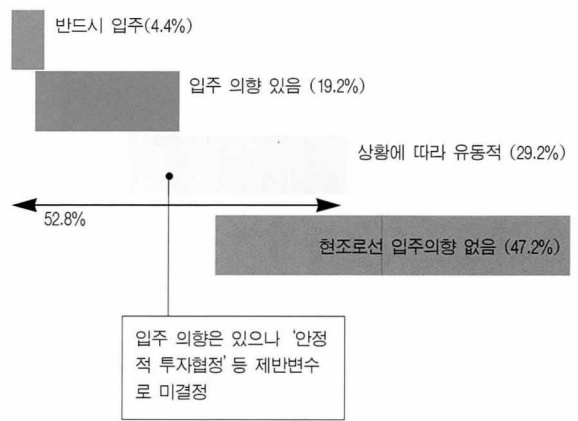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노사분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있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갈 대목은 기업 경영 10년 미만 CEO의 68.8%가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의 평균 기업경영 능력은 10.2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겪는 위기감이 추후 중소기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 당국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용우 기자〉

개성공단 입주 의향은?



개성공단의 적절한 평단 분양단가는?



오사코의 최첨단 중철기를 만나보십시오

SADDLE STITCHER ESTAR

● 사용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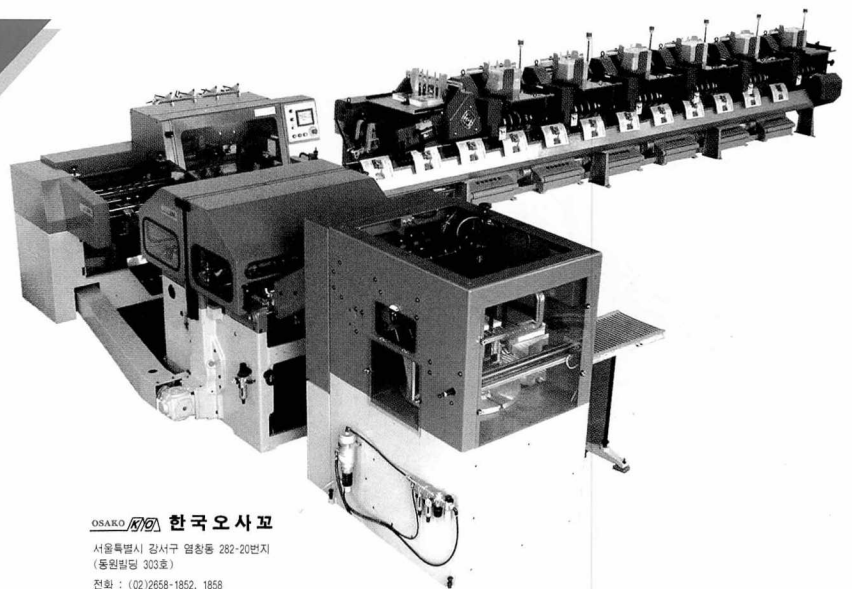
대부분 공구없이 기계의 각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5인치 모니터시스템 및 터치패널을 도입, 간단히 기계를 셋업해 제본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최첨단 오사코 중철기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안전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커버는 작업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OSAKO 한국 오사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창동 282-20번지 (동원빌딩 303호)
 전화 : (02)2658-1852, 1858
 팩스 : (02)2658-1858